

## 다케시마 수족관

다케시마 수족관의 혁신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디스플레이는 미카와 만의 풍부한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더 멀리 태평양 심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. 일반적인 설명 패널과는 달리, 수족관의 수기로 된 안내판은 전시된 물고기와 갑각류에 대한 세부 정보가 초등학교의 성적표나 프로필과 같은 형식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. 다른 안내판에는 바다 생물들이 직접 상상한 “코멘트”가 포함되어 있어서 특히 어린이들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.

수족관의 해양 생물을 위한 서식지의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창의적입니다. 한 디스플레이는 아파트 건물처럼 보이도록 배열된 다채로운 콘크리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. 이 수조에 서식하는 물고기는 해저 근처의 조건과 유사한 블록의 밀폐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.

전시된 심해 생물 중 상당수는 희귀종이며, 가마고리를 기점으로 4 척의 심해 어선에서 일하는 지역 어부들의 그물에 우연히 잡힌 것도 많습니다. 다케시마 수족관에는 상어, 도미, 바닷가재 등 약 140 종의 심해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.

수족관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현지 해산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. 일부 수조에는 먹기 좋은 해양 생물임을 나타내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, 사진과 비디오는 특정 물고기의 요리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데 사용됩니다.

수족관의 한쪽 구석에 얇은 개방형 수조가 있어 바다 생물을 다정하게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수족관에는 물고기와 갑각류 외에도 수달, 카피바라, 거북이 등이 살고 있습니다.